

김 선교사의 선교편지

올해 3월에 커피 농장 구입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에 온 지 8년여 만에 처음 시도한 프로젝트이기도 했습니다. A도시에서 2년간의 언어훈련 후, 6년여간 이곳 B도시에서 비즈니스 비자로 지내면서, 사업을 위한 목돈은 필요하지 않았습니 다. 제가 피부과 클리닉에 직접 영업하러 다니면 되었기에 굳이 사무실도 필요 없이 몸으로 뛰어다니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주어진 신분에 맞게 살기 위한 생존의 몸부림이었고, 사실 다른 선택의 여지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간 혼자 영업을 하다가 나중에는 직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월세 십 만원 남짓의 2층짜리 자그마한 사무실을 빌렸습니다. 특별한 인테리어도 없이 최소 비용으로 운영했습니다. 교회 밖에서 제대로 된 일을 해 본 적 이 없는 저였기에, 목돈이 없었기에 천만다행이었지, 만약 있어서 다른 사업을 했다면 100% 망했을 것입니다. 모두 다 아버지의 인도하심이지요.

3년여 전, 새로운 시도로서 특별한 만남을 꿈꾸며 입학한 이슬람 국립 대학원에서 N형제를 만났습니다. 학교에서, 또 밖에서 오랜 시간 교제하며 삶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N형 제가 커피 농부의 아들이라는 것도, 외부에서는 알 수 없는 그곳 농부들이 처한 현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2년 전, 막연히 N형제와 그 가족, 그리고 주변 농부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으로 커피 일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러 시행착오도 있었고 사업적으로 불가능해 보여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아버지께서 저희 가정 에게 주셨던 마음, 무엇보다도 ‘한 영혼’ 바로 N형제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저희를 이곳까지 이끌었습니다. 그렇게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기대도 있었지만 우려가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선교지에 교회를 건축하는 것도 아니고, 신학교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고작 커피 농장 구입을 위해서 모금을 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할까?’

명분도 부족하고, 어쩌면 그냥 그렇게 흐지부지 되어 끝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예상치 못한 방법과 예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는 저희를 위해 원래는 선교지에 교회 건축을 위해 모아 놓으셨던 귀한 돈을 후원해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단지 돈만 후원하는 것을 넘어서 마치 이곳에서 함께 커피 농장을 운영하는 마음으로 세심한 관심과 격려로 참여해 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사연과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십시일반 힘을 모아 주셨습니다. 그런 감격스럽고도 눈물 나는 격려와 후원에 힘입어 7월 초에 커피 농장(대략 1헥타르)을 3,000만원에 구입했고, 이번 주중에 커피 가공 및 사무실 장소(약 450평)를 3,000만원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바라기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구매한 커피 농장과 가공장소가 일반적인 협동 조합을 넘어 예수님의 환대를 전해주는 환대 공동체로 세워지길 소원합니다. 이 장소가 N형제와 그 가족들을 비롯해 주변 농장들과의 협업 및 협동조합 설립에 도움을 줌으로 경제적인, 또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쳐 복의의 통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이끄시는 커피 협동 조합을 위한 출발선에 섰습니다. 계속해서 동역자님들의 기도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한국으로 커피를 수출하기 위한 예비된 바이어와의 특별한 만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농부들과의 협업 및 협동조합을 위해서 아버지의 지혜와 인도하심도 절실 합니다.

또 이번에 구매하게 되는 땅에 본격적으로 커피 가공을 위한 여러 시설도 필요합니다. ① 땅 평탄화 및 시멘트 작업, ② 안전을 위한 시멘트 담장 설치, ③ 프리미엄 커피 생두 가공을 위한 비닐 하우스 설치, ④ 커피 창고 및 사무실 건물 건축 등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우리 아버지께서 필요에 따라 하나씩 채워 주시리라 믿고 나아갑니다.

26.9.27 김 선교사로부터

주일오전예배 말씀요약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혼인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한 두 번 어려움 가운데서 도와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 간에 영원한 관계를 맺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이후에는 실제로 결혼식 이후의 순서들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혼인예식을 맺고 난 이후에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함께 살아갈 집을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은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집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집에 대한 상세한 설계도를 지시받고 있는 도중에 벌어진 일이 바로 오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단순히 금송아지 모형을 만든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방금 전 어떤 형태로도 신의 모양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던 말씀을 어기는 행위였습니다.

구역모임

1. 내가 배우자에게 다른 것보다 더 많이 화가 나는 행동이나 말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그중에서도 이것만큼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2. 이스라엘 백성은 왜 무슨 생각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그렇게까지 화를 내셨던 것입니까?

3. 원래 언약대로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셔야 했습니까? 그러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대신 어떻게 하십니까?